

# 중국의 해양전략

이 원 봉\*

## 목 차

- I. 서 론
- II. 중국의 해양환경과 국가전략
- III. 중국의 해양전략
- IV. 중국의 해양안보전략과 해군전략
- V. 결 론

## I. 서 론

역사적으로 바다를 지배했던 나라는 국력을 대외에 과시함으로써 강대국이 되어 세계의 역사를 주도해 왔다. 해양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군사력을 투사하거나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중세 이후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이 세계 최강의 해양 강국들이었다. 이들은 강력한 해군력을 통해 광대한 식민지를 획득하였고 경제적 부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이들 국가의 흥망성쇠는 제해력(制海

力)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임진수, 2007). 21세기 미국이 국제사회의 패권을 장악하고 국제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도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할 수 있는 제해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서구 해양세력의 침략을 받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근대 서구의 침략사를 통해 해양과 해양력의 중요성을 실감해 왔다. 역사적으로 지난 두 세기 동안 중국은 해양으로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서구 해양 강대국에 의한 대규모의 침략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중국은 해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해야

\* 경희사이버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21세기 중국이 해군을 중심으로 한 군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역사적 경험과 필요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이홍표, 165).

21세기 이후 인류는 식량과 에너지를 포함한 자원문제에 봉착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세계는 육지자원이 고갈되면서 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해양에는 어류자원뿐만 아니라 광물자원과 석유 등의 에너지 자원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다. 세계의 인구가 2100년까지 110억 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토대로 할 때, 지구상의 육지만으로는 미래의 식량, 에너지 및 광물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해양을 개발하여 인류의 수요를 충족하려는 정책이 강화되어 왔으며 해양의 전략적 가치는 점점 더 증대될 것이 분명하다. 해양에서 생산되는 석유와 천연가스는 중요한 세계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어 왔다. 오늘날 석유생산량 가운데 해양에서 생산되는 양이 증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약 30개 지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조사되었다(Eric Grove, 44: 이재형, 19-20). 해양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연안의 바다 및 해저자원을 독점적인 자기 관할 하에 두기 위한 새로운 해양분할전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해양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를 주장하는 새로운 해양 질서가 등장하였다(김중헌, 12).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도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해양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국가들은 해양 공간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설정과 관련하여 서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인 지역분쟁 요인이 되고 있다(국방백서2006.

20) 동북아시아의 일본과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해양국가화 하였고 중국도 198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경제발전노선을 걸으면서 해양국가화 하고 있다. 이는 동시에 동아시아 해역에서 전략적 경쟁구도가 심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강량·임수환, 158). 특히 일본과 중국의 해양 중시정책은 해양력 증강으로 나타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안보구도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한 나라의 해양전략(Maritime strategy)은 “국가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해군을 포함한 해양력의 활동을 이끌어 가는 기존 원칙의 총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 같은 해양전략은 국가의 내부 및 국제적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해군력은 해양전략을 실천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중국의 해양전략도 중국의 국가목표 및 국가전략을 지원하는 해군력의 기본적인 운영원칙과 관련이 있다(이홍표, 164). 이와 같은 개념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해양전략을 국가전략의 하위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해군력 증강을 위주로 하는 해군전략은 해양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중국은 국가의 주권과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국가목표로 지향해 왔다. 중국의 국가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과정을 국가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중국의 해양전략은 국가전략의 하위 개념으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양력을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해양중시정책은 개혁개방정책이 시작되면서 본격화되었고 탈냉전 이후에는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개방정책과 연안지역 방어를 위해 그리고 교역증대를 보호하기 위해 해군력을 중심으로 해양력을 증강해 왔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해양영토의 확대를

통해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미국의 해양력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력을 증강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해양력 강화를 통한 영향력 확대는 동아시아 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통해 나타나는 해양전략의 내용과 특징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먼저 해양전략의 배경이 되는 ① 동아시아와 중국의 해양환경의 변화 ② 중국의 국가정책(중국 지도자들의 국가전략, 대외정책, 국방정책 등) ③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을 분석하고 이러한 배경분석을 토대로 ① 현대 중국 해양전략의 방향 ② 중국 해양안보전략의 특징 ③ 중국의 해군전략과 해군력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중국해양전략의 본질적인 의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 II. 중국의 해양환경과 국가전략

중국의 해양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대외적 환경과 대내적 환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대외적 환경은 중국의 해양환경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 주변 해양환경의 변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해양전략을 추진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주변국들과의 해양관계는 중국의 해양전략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내적 환경에서는 중국지도부의 국가전략과 대외개방정책 그리고 안보전략의 방향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중국의 해양전략에 영향을 주고 있다.

### 1. 해양환경의 변화

#### 1) 해양자원을 둘러싼 갈등

유엔해양법 협약 채택 이후 동아시아 지역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이 확대됨에 따라<sup>1)</sup>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을 둘러싼 관할권이 중복되는 사례가 증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해양경계 획정문제로부터 야기되는 국가 간 갈등과 마찰은 역내 불안정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동아시아 수역은 대부분 반폐쇄해로서 연안국들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선포할 경우 불가피하게 중복된다. 따라서 경계획정 문제는 동 지역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sup>2)</sup>

실제로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EEZ 설정의 기준이 되는 연안국의 기선설정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해 왔다. 중국, 북한, 일본 등 일부 국가는 기선을 설정함에 있어서 직선기선(straight baseline) 제도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그들의 해양관할권을 확대해 왔다. 한편 동아시아 지역 해양에서의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의 부존 가능성도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가 간에 해양경계 획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sup>3)</sup>

해양의 에너지 자원 못지않게 어족자원을 둘러

- 1) 유엔해양법 협약에 의해 인정되는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범위는 영해 12해리, 접속수역 12해리(영해경계선으로부터 기준), 대륙붕 200해리(대륙변계가 잘 발달되어 있을 경우 350 해리까지 연장),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영해경계선으로부터는 188해리) 등이다.
- 2)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는 "서로 마주 보고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간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1항) 제83조도 대륙붕 경계에 대해 똑같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엔해양법 협약의 해양경계 획정은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3) 일례로 중국의 경우 1996년 5월 황해와 동중국해를 접하고 있는 연안과 남중국해에 대한 과도한 직선기선을 설정함에 따라 인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대한 해양경계 마찰을 야기한 바 있다. 동아시아지역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대표적 수역은 태국만 남서부해역(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 톤킨만해역(중국-베트남), 아라푸라해(인도네시아-호주), 동중국해(중국-일본-한국), 황해(남-북한-중국), 나투나섬 서북부해역(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중국) 등이 꼽히고 있다(Mark J. Valencia, 268).

러싼 국가 간의 갈등도 심화되어 왔다.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동아시아 국가들은 해양을 통한 어족자원에 크게 의존해 왔다. 세계 어획고의 1/2 이상이 아시아 지역에서 잡히거나 양식되며, 이중 절반은 아시아 지역에서 소비된다(Sam Bateman, 4). 특히 동북아의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세계적인 원양어업국가(Distant Water Fishing Nations, DWFN)이며, 또한 EEZ의 생물자원을 주요 수출입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해양에서의 어족의 이동성과 어업활동의 광범위성을 제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같은 이유로 동아시아 국가 간의 어업 분쟁이 증대되어 왔다. 해양 관할권이 중복되는 곳에서의 어업활동은 이해 당사국간 불법 어로와 남획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 해군력간의 직접적인 충돌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의 어업레짐은 불충분하며 파편화 된 것이 문제이다(Mark J. Valencia, 262; 이근수, 186-187).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해양을 둘러싼 불안정한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중국의 해양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 중국의 해양환경

지리적으로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태평양을 끼고 있다. 중국의 해안선은 약 14,500km나 되어 세계에서 해안선이 긴 나라 중 하나이다. 중국은 넓은 해양과 대륙붕을 갖고 있어 해양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해양개발의 필요성이 크다(김추운·장삼환, 36-37). 중국의 해양에는 해양생물과 석유천연가스, 고체광산, 재생가능 에너지 등의 자원이 풍부하고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생물 2만여

종, 경제성해양어류 3,000여종, 해양석유 자원량 약 240억 톤, 천연가스 자원량 1조4천억<sup>m</sup>, 재생 가능한 해양에너지의 이론적 저장량 6억3천만kw를 보유하고 있다(박광열, 2).

중국 해안은 동쪽과 남쪽으로 발해, 황해, 동해, 남해로 둘러 싸여 있다. 발해는 중국의 내해이고 황해, 동해, 남해는 태평양과 서로 연계되어 북서태평양의 변해(邊海)에 속한다. 이 4개의 해역에 약 5,000여 개의 섬이 분포하는데 보통 이 해역을 총칭하여 중국해라고 한다. 또 일명 중국 근해라고도 한다. 중국 근해 주변의 나라로는 한국, 북한,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 등이 있다(김추운·장삼환, 227). 이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 많은 해양인접국을 접하고 있는데 중국해양의 특징이 있다.

현재 중국은 엄청난 규모의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그리고 경제발전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해양자원을 개발해야 할 필요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지구상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약 13억 인구의 중국은 국토 면적이 960만<sup>km</sup>로 세계 3위이지만 세계 최대의 인구 때문에 1인당 토지 넓이는 세계 평균보다 작다. 또한 개혁개방정책 이후 추진되고 있는 경제발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중국은 해양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개척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의 해양학 전문가들은 정부 지도부에 거대한 해양자원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해 왔다(한겨레신문, 2000.8.7).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양 해군화 할 수 밖에 없는 근거로 인구에 비해 좁은 경작지와 식량문제 그리고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르는 해양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들고 있다. 더 나아가 이에 따른 영유권의 확대, 긴 해안선을 접한 영해 보호, 막대한 물량의 해양수송로 보호

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John Dowing, 12).

한편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향후 해양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지적해 왔다(이홍표, 468-470).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의 독립은 중국의 국시인 “하나의 중국” 원칙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며 남중국해는 해양자원문제와 관련하여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은 해군력을 꾸준히 증강시켜 왔다(John Dowing, 12). 더 나아가 중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해양능력을 강화해 왔다. 종합적으로 중국의 해양환경은 국가전략 상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부여된다. 첫째는 국가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한 해양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의 과제이고, 둘째는 해양환경 내에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과제이다. 셋째는 대만의 분리정책을 대만해협을 통해 견제하는 것이다.

## 2. 중국의 국가전략과 해양전략

중국 해양전략의 대내적 배경으로 지적될 수 있는 요인은 크게 중국지도부의 국가전략, 대외개방정책, 안보전략, 경제발전전략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국가전략, 대외개방정책, 안보전략, 경제발전전략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 중 중국의 해양전략과 관계되는 요인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1) 중국의 국가전략과 해양전략

현대 이후 전략의 개념은 군사를 넘어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리델 하트(Liddell Hart)는 전략을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군사적 수단을 배분하고 적용하는 술”이라고 정의하였다(공군사관학교, 84). 전략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의 전체적인 수준에서

의 전략 개념과 군사부문에서의 전략 개념을 구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군사전략은 순수히 군사적인 차원의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 전체 차원의 전략에 있어서는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공군사관학교, 89). 미국의 합참은 국가전략을 “전·평시를 막론하고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력과 함께 한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인 힘을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술이며 과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육군사관학교, 17). 결론적으로 국가전략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 군사적 제 역량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방책이라고 규정된다.

중국의 국가목표는 현대화되고, 통일된, 그리고 부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다. 중국의 지도부는 궁극적으로 중국이 성숙한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를 원한다. 중국 지도부는 자국의 풍부한 자연자원, 인적자원, 핵보유능력,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그리고 급성장해 온 경제력 등의 요소들을 국가발전의 배경으로 삼아 왔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중국의 지도부는 2050년까지는 적어도 지역강대국의 지위를 달성할 것이라 믿고 있다(세종연구소, 2001).

중국의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국의 국가전략은 평화와 발전이 주된 국제적 조류를 형성함으로써 전쟁이 회피되는 상황을 지향하고 있으며, 경제력을 포괄적 국가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배경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과학과 산업에서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며, 중국의 육지·해상 자원의 탐사와 개발 및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국가전략의 최우선권을 부여하여 왔다. 중국의 국가전략의 방향은 첫째, 경제발전과 이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국력의 증대와 이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평화적인 주변 환경의 조성이며 최우선중국의 현 정치지도자들의 핵심적인 관심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둘째, 국가주권과 관련하여 영토의 보전, 부속도서의 주권유지, 적절한 해양관할권의 확보이다. 중국의 해양전략은 이러한 국가전략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지침인 동시에 수단이다(이홍표, 164-65).

중국의 지도자들은 국제적, 자연적 환경이 직접적으로 국가발전의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끼친다고 믿어 왔다. 따라서 중국의 국가전략은 긍정적인 환경의 영향을 복돋우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도자들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이를 위한 평화와 안정적인 국제환경 조성을 추구해 왔다. 따라서 중국의 해양전략에 있어서도 이전보다 더욱더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해양자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해양전략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 2) 중국의 경제발전전략과 해양전략

198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온 중국의 개방정책은 연안지역에 대한 외국의 투자 유치 및 대외무역의 증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발전전략으로서, 연안지역 및 해상 교통로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 추진 이후 차례로 1979년-1988년간 5개 경제특구를 설치한바 있다.<sup>4)</sup> 중국의 30개

성급 행정구역 중 9개의 성과 3개의 직할시(북경, 천진, 상해)가 모두 연안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거 및 경제활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경제특구 및 개방도시의 확산으로 인해 연안지역은 중국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연안지역은 중국 GNP의 70% 이상을 산출하고 있으며, 경제특구가 집중되어 있는 광둥성의 경우 연평균 20-30%의 초고속 성장을 지속해 왔다(김태호, 134-135). 개혁개방 이후 대외 개방정책을 통해 중국은 이미 세계 10위권 내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중국의 개방정책 추진과 경제발전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양권익이 중국의 국가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제고되었다. 중국의 경제발전전략은 연안지역에 대한 외국의 투자유치 및 대외무역의 증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발전전략으로서, 연안지역 및 해상교통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특히 긴 해안선 및 영해의 보호, 연안지역의 보호, 해양유전과 천연가스 등과 같은 해양자원의 확보, 해상수송로 보호 등 해양권익을 수호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제고 되어 왔다(이홍표, 100). 중국 지도부는 경제발전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양자원 개발정책과 해안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해상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능력을 증강시키는데 국력을 집중시켜 왔으며 동시에 해군력 증강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전략을 추진해 왔다.

## 3) 중국의 대외정책과 안보전략

중국의 대외정책은 국가목표와 국가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설정과 집행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수립된 현대

4) 이후 1984-1991년 14개 연해개방도시를 설치하였고, 1984-1994년에는 32개 경제기술개발구를 설치하였고, 1988-1992년에는 52개 첨단기술 산업개발구를 설치하였고, 1992-1995년에는 14개 변경 경제 합작구 또는 변경 자유무역구를 설치하여 개방에 의한 경제발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연해에서 시작된 개방정책은 연강, 연선 및 연변으로 확대되었다. 연해에는 남에서 북

으로 화남경제권, 장강하류경제권, 환황발해경제권 및 동북아경제권 등이 진행되어 왔다(박병석, 154).

중국의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로 반패권주의와 평화 수호, 둘째로 새로운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수립으로 요약된다.<sup>5)</sup> 따라서 현재 중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은 국가전략인 개혁과 개방정책의 보다 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변정세의 평화와 안정 구축, 주요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증진, 세계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방 위외교의 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중국의 경제발전정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1세기 중국의 경제발전전략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대외지향형 경제를 지역별로 다원화해 나가는 것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대외정책의 목적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중국의 해양전략은 대외정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경제발전전략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하는 과정인 것이다.

한편 중국의 안보전략은 현실주의 세력균형론에 입각한 종합국력 배양전략이 그 근간을 이룬다. 중국 안보전략의 기본목표는 경제발전에 우선 순위를 두고 평화적인 대외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자주적인 국방력 증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을 견제하는 세력균형자 역할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보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리한 환경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중국은 정책적으로 우월한

해양력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대외정책과 안보전략의 추진과정에서 중국의 해양전략이 차지하는 비중도 날로 증대되어 왔다.

#### 4) 외부 위협과 해양전략

탈냉전시대 동아시아지역 안보환경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우선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양상이 혼재하고 있는데 있다. 즉, 한편으로는 역내 경제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지역협력 분위기 확산 등 평화질서 정착 조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 지역 국가들의 군비 증강에 따르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기되는 주요 해양 문제의 하나는 해군력 군비경쟁이다. 지역적 차원에서 역내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 심화라는 협력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은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방위비 증강 및 무기확산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대상이 해군력(maritime forces)에 집중되어 왔다(Pacific Review, 2000).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지역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미일동맹 강화와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을 중심으로 한 해양력의 증강이다.

냉전 종식 이후 일본의 해군력증강 추세, 미국의 중국견제 강화, 미일동맹 강화 등은 중국의 해양안보전략에 영향을 미쳐왔다. 1980년대 이후 일본의 국방개념은 1,000해리 전수방어개념(專守防禦概念)으로 발전하여 점차 정치력 확대와 더불어 전진방어개념으로 확대되어 왔다. 1997년 9월 일본과 미국 간의 미일안보협력지침은 일본의 해군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을 더욱 확대시키기 시작하였다(중앙일보, 2000. 10. 5). 일본의 해군력 증강 추세와 미일동맹

5) 첫째, 반패권주의와 평화 수호의 전략목표의 핵심은 평화를 옹호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은 ①주변국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회복하는 것이다. ②중국이 평화와 발전을 견지하여 아태 경제발전과 지역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③세계 각 국가와 우호관계 및 협력을 증진시킨다. 둘째, 중국이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Yu Xiaoli. 1997) 참조.

의 강화추세는 중국의 해양안보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개념으로 초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해양안보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2001년 미국의 부시정부가 등장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압력은 1, 더욱 강화되기 시작하였다.<sup>6)</sup> 미국의 중국견제는 2009년 오바마정부에 들어와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중국 견제일보, 기본적인 성향은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는 중국이 지속적인 해양력 강화에 명분을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해양력 증강, 미국의 중국견제정책 이외에도 중국과 대만간의 갈등,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 간의 해군협력 등도 중국의 해군력 강화의 배경이 되고 있다. 여러 요인 중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대만문제로서 미국과 대만간의 군사협력과 대만의 독립정책이다. 미국은 대만에 지속적으로 무기원조를 해 왔는데 이러한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지원정책은 중국의 강한 반발을 받아 왔다.<sup>7)</sup> 중국은 미국의 대만 지원을 견제하기 위해 해군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시위와 해군력 증강을 꾸준히 추구해 왔다.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문제 다음으로 예민한 부분이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 간의 해군협력이며 이 또한 중국 해군력 증강의 배경이 되어 왔다.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 간의 군사협력과 군사훈련은 주로 해군협력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이외에도 탈냉전 이후 동남아 국가들의 해

군력을 확장 추세도 중국해군력 증강의 명분을 주어 왔다.<sup>8)</sup> 이상과 같은 미국의 중국 압박, 미일 군사협력, 일본의 해양력 증강, 중국 주변국들의 해군력 증강 등은 중국을 자극해 왔으며 이는 중국의 해군력과 해양력 증강에 명분을 주고 있다.

### III. 중국의 해양전략

#### 1. 중국 해양전략의 목표와 특징

21세기 중국의 국가목표와 국가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전략의 기본 방향은 ① 해양자원의 보호와 개척, ② 대외경제정책 지원 ③ 미일 군사동맹과 대만 견제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중국 해양전략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① 적절한 해양의 권리 및 이해 확보 ② 경제발전을 위한 해상교통로(SLOC: Sea-Lines of Communication) 방어 ③ 해양으로부터 유래되는 외부 위협 억제 ④ 영토의 보전 및 부속도서의 주권 수호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해군력을 보유하는 것이 중국 해양전략의 핵심요소이다(이홍표, 165).

한편 중국의 해양전략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중국의 주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으로서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경제발전과 4개 현대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평화적 외부환경을 조성해 왔으며 따라서 평화적인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노력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해양에서의 영토문제를 중심으로 한 주권문제

6) 2001년 3월 21일 미국의 럽스펠드 미국방장관은 부시대통령에게 제출된 보고서에서 미군사전략의 주요 무대를 아시아로 이동시키고 향후 미국의 제 1의 적대국으로 중국으로 상정하여 '중국포위' 를 위한 아시아지역의 다각적인 군사력 증강방안을 강조한 바 있다(조선일보, 2001.3.25).

7) 미국과 대만은 2000년 4월 17일 워싱턴에서 무기거래 회담을 열고 44억 달러 규모의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의 대만 판매 여부 등을 중점 논의했다. 중국은 대만이 이지스함을 획득하는 경우 강력히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왔다(국민일보, 2000.4.18).

8) 냉전 종식 이후 태국은 1997년 8월 동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輕항공모함을 진수시켰으며(스페인 건조 Chakri Naruebet 호), 인도네시아는 최근 39척의 동독군함을 인수 개조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영국의 레키우(Lekiu)급 프리켓함과 이태리로부터 4척의 아사드(Assad)급 코르벤팀함을 도입했으며, 싱가포르는 스웨덴으로부터 2척의 기뢰 탐지함과 A-12형 잠수함 1척을 도입하였다. 탈냉전 이후 동남아 국가의 해군력 증강현황은 (IISS, 1997) 참조.



에 있어서는 주변국들에 대해 위협적인 태도도 서슴치 않아 왔고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강경한 자세를 보여 왔다. 해양법협약의 비준을 전후한 시점에서 중국이 보여준 해양전략은 중국이 해양 쟁점의 성격에 따라서 주변국에 대해 강온 양면정책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이근수, 171). 이와 같이 중국은 해양주권의 해결을 위해 이중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중성이 현대 중국 해양전략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2. 해양권익의 보호와 확대

현대 중국의 해양전략의 핵심은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개척하는 것이다. 중국이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개척하는 과정에서 해상교통로 보호 문제, 해양경계선 설정문제, 남중국해문제 등이 주변국과 첨예한 문제로 부상해 왔다. 중국의 해양에 대한 주권을 추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 1) 해상교통로 보호

해양에서의 항로는 역사적으로 해양세력들 간의 경쟁의 장이 되어 왔다. 주요 해양국가들은 주요 항로에 대해 통제권을 장악해 왔다. 현대 국제사회에서 해상교통로(SLOC: Sea Lanes of Communication)는 경제발전은 물론 국력의 신장에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오늘날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는 무역이 국제무역의 80%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군사적으로 항로는 강대국들에게 있어서 자국의 해군력을 다른 지역에 투사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이용되어 왔다(이재형, 22).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은 대체로 대외무역에 크게 힘입은 것이며 대외무역은 거의 전적으로 해상운송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수출지향

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물자수송의 주된 통로가 되는 해상교통로(SLOC)의 안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역내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다.<sup>9)</sup>

동아시아 해양교통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이서향, 1999). 첫째, 군사적 요인에 의한 해상교통로 위협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도서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관련국간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으며 해양 인접국간의 군사훈련, 실질적인 무력사용 등은 해로안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역안정 및 안보를 해치는 심각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둘째,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행사 등에 의한 통항제한 위협이다. 즉, 연안국이 영해의 기준선을 지나치게 확대시킨다든지 또는 항해에 이용되는 국제해협을 봉쇄하거나 만(bay, gulf)과 같은 특정지역을 국내 수역(내수)으로 선포할 경우 통항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셋째, 해적, 마약운반, 불법난민의 해상수송 등 새로운 해상범죄행위의 등장이다. 최근 해적행위는 동아시아 역내 경제활동과 직결된 해상교통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중국, 인도와 같은 거대 인구를 보유한 국가가 적극적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이후 해양을 통한 국제무역이 더욱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해양안보의 관점에서 국제경제의 수출주도형의 경제발전전략은 해양수송로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게 되었으며

9) 본래 SLOC 개념은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처음 사용되어 "작전부대와 작전기지를 연결하여 그 노선을 따라 보급품과 증원군이 이동하는 해상의 통로"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해양을 통한 국가간의 무역이 확대되면서 단순한 군사적 의미를 넘어 "해상에서 사람과 물자의 원만한 수송을 위한 체계적 연결망과 시설"이라는 통항과 관련된 포괄적 뜻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Jon M. Van Dyke, Lewis M. Alexander and Joseph R. Morgan. 55).

따라서 해양의 전략적 가치를 증대시켜 왔다 (강량·임수환, 158). 현재 중국은 대외무역의 85% 이상이 해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외무역의 급속한 신장으로 인해 해상 교통로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증가해 왔다. 따라서 기존의 12해리 해안방어선을 포함해 공해상에서 중국 상선을 호위하는 임무와 연안지역을 보호하는 것이 중국 해군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였다.

## 2) 해양자원 확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해양권의 가운데 해양 자원의 확보와 개발을 중요한 해양전략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 왔다. 1990년 초 중국의 해양권의 보호를 생존공간의 확보와 연계시키자는 주장이 중국 지도부내에서 대두하였다.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의 내부문건은 중국의 에너지 부족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자원측면에서 남사군도에는 미화 약 1조불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신강성 유전의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이 지역은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될 것이며, 다음 세기 중국인의 생존공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국 해양전략의 주요 목표는 중국의 영해와 도서(島嶼) 그리고 대륙붕 및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보호하는데 두고 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해양권의 보호가 미래 중국의 전략적 공간 및 경제자원의 확보와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2, 16). 이러한 환경이 중국으로 하여금 강력한 해군력을 확보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광범위한 해양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은 점진적으로 동남부 중국해, 황해, 그리

고 동해로까지 해군력 투사역량을 확대해 왔다 (이재형, 110).

중국정부는 1990년대 이후 해양자원개발을 통한 해양경제발전을 국가발전전략 및 경제진흥의 중대한 조치로 삼고 해양자원과 환경보호, 해양관리, 해양사업에 대한투자를 점차 확대해 왔다. 또한 제도적으로 중국은 해양개발활동을 규범화하고 해양생태환경을 보호하기위해 ‘해양환경보호법’ 과 ‘해양교통안전법’, ‘어업법’, ‘해양사용 관리법’ 등 일련의 법률과 법규를 공포 시행하였다(박광열, 2).

한편 중국정부는 해양자원 조사를 통해 심해 광물 채굴, 바닷물의 종합적인 이용, 해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등 각종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중국은 해양 석유 및 가스 생산을 2005년까지 현재의 두 배인 4천만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운바 있다 (한겨레신문, 2000.8.7). 중국정부는 2000년에 2001년부터 2010년간의 전면적인 해양경제 발전을 위한 청사진적인 ‘전국해양경제발전계획 요강’ 을 제정하였다. 동 요강에는 해양어업과 해양교통운송, 해양석유천연가스, 해변관광, 조선, 해양화공, 해양생물학 등 거의 모든 해양산업 분야가 망라되어 있으며 주로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 위주의 계획이다(박광열, 2).

## 3) 해양력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전략

중국은 에너지자원 획득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펼쳐 왔다. 1997년 중국은 미래의 석유 탐사 및 개발을 위해 세 번째 국영 석유회사인 중국석유공사(CNPC)를 설립했다. 같은 해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중국근해석유공사(CNOOC)의 대표사무소를 개설했다. 또한 CNPC는 수단의 유전건설프로젝트, 말레이시아의 석유저장소, 투르크메니스탄의 파이프라인, 쿠웨이트의 정유소를 포함해 외국과 18개의 석유탐사 및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중

국은 인도, 캐나다, 페루, 태국, 베네수엘라와 석유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이재형, 148). 중국이 석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자원 확보정책은 해양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해양전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한편 1997년 홍콩의 헛치손-웹포아시는 파나마 운하의 태평양과 대서양 양안 항구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는 이집트와 협정을 맺어 중국대양해운회사의 선박이 수에즈운하에 있는 항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Stratfor, 222; 이재형, 110). 이 협정을 통해 중국은 국제적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미국의 항공모함 전투단의 수에즈운하 통행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미루어 보아 중국이 해양경쟁과 도전에 대비하여 해군력을 증강시켜 자국의 해양이익을 적극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재형, 110).

2000년 이후 중국은 남태평양지역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지원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고 이는 중국의 해양력을 확대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와 멜라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에 분포된 14개 군소 섬나라에 대한 중국의 원조, 투자, 이민 글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을 경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2006년 4월 피지에서 열린 태평양제도포럼에서 3억7500만 달러의 개발원조와 차관을 남태평양 국가들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동아일보, 2007.8.24). 중국의 남태평양으로의 영향력 확대는 중국 해양전략의 주요한 목표로 부상되기 시작하였다.

### 3. 평화적 환경 조성의 해양전략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적극적인 해양진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해양전략은 방어적이고 평화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남중국해문제, 대만해협문제 등에서 냉전종식 이후에는 화해의 정책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은 남사군도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 이후 중국은 동남아국가연합과의 경제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기를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1990년 8월), 싱가포르(1990년 10월) 및 베트남(1991년 11월)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였다(김태호, 136). 더 나아가 1990년 1월 ASEAN과 중국 간에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남사군도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최초의 회의였다. 또한 1991년 7월 인도네시아에서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10개국이 모여 소유권 확보를 위한 무력행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1992년 7월에는 「이해당사국회의」를 개최하여 이 지역 해양자원에 대한 조사 및 개발을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에도 중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세안 국가들에게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해 왔다. 1995년 브루나이에서 있었던 ARF 회의에서 중국은 남사군도에 대한 분쟁해결 방식은 국제해양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언함으로써 아세안에 화해의 제스처를 지속적으로 보냈다(Donald K. Emmerson, 81).

중국이 1996년 6월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한 것은 주변국가들의 의구심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해양레짐의 일원이 됨으로써 중국이 적어도 규범적 차원에서는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동의한 것

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이근수, 171). 중국의 평화적인 해양전략은 이후에도 계속 추진되어 왔다. 특히 2000년 9월 중월전쟁 이후 적대적인 관계이었던 베트남과의 우호관계 회복은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sup>10)</sup> 이와 같이 중국은 주변국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시켜 왔는데 이는 주변국들과의 평화적 관계 수립이 중국의 대외지향적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환경 조성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지도부의 남사군도분쟁의 평화적 해결 노력은 유리한 해양환경 조성 가운데에도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부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도, 미얀마 등과의 관계개선 과정에 중국해군의 활동과도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전략의 방향을 찾아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 주변국간의 갈등은 해소되고 있으나 중국은 근본적으로 남중국해에서 그들의 이해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차 영토문제가 부각될 시 중국은 해군력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IV. 중국의 해양안보전략과 해군전략

### 1. 중국의 해양안보전략

#### 1) 중국 국방전략의 변화

현재 중국의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은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선언된 '4개현대화'의 일환인 '국방현대화계획'을 꾸준히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어 왔다.<sup>11)</sup> 중국은 국방현대화를 통해 양

보다는 질 위주의 군사력 건설이라는 기치 하에 국방현대화정책을 추진해 왔다. 중국의 군지도부는 1980년대 이래로 전면적인 군사개혁을 시도, 군사조직 및 교과장비 면에서 더욱 효율적인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 수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중국군 현대화의 핵심은 단기전과 국지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공군 강화와 기동적인 지상군의 편성에 있으며, 특히 1990년 걸프전에서 첨단무기의 위력을 직접 관찰한 뒤 해공군력에 대한 강화는 가속화되었다. 중국은 군사력을 양에서 질로 바꾸기 위한 1차 작업으로 1985년 이래 250만이 넘는 병력을 감축했다(이서향, 1999).

중국의 국방전략은 냉전 종식 이후 커다란 전기를 맞게 되었다. 즉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증진으로 인해 중국의 전략적 대비 중심은 북·북서 방향에서 대만과 남사군도를 상정한 남·남동 방향으로 이동하였다(이홍표, 100) 이는 국방전략의 중심이 대륙에서 해양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을 방어하는 총체적 방어전략을 일반적으로 강조하던 데에서 벗어나 신속한 응전, 제한된 충돌, 그리고 융통성 있는 대응 등을 강조하는 국지전 전략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지전 전략은 선제행동과 국경지역에 대한 힘의 제한된 투사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국경 밖에서도 작전하려는 "적극 방어"의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sup>12)</sup>

이러한 중국의 "적극 방어" 독트린은 공식적으로는 "현대적 상황 아래에서의 인민전"으로 정의되지만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전"으로

10) 판반카이 베트남 총리와 주룽지(朱鎔基)중국 총리가 2000년 9월 25일 양국간 해상 국경 협정을 가급적 올 연말까지 매듭짓기로 합의했다. 朱총리는 "국경 문제 해결이 중국과 베트남간 친선의 중요한 부분" 이라고 말했으며 판반카이 총리도 공동 노력으로 올해 말까지 국제적 해상 경계를 양국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중앙일보, 2000.9.27)

11) 우선 군 조직의 양적 축소와 질적 강화, 그리고 무기의 현대화로 요약된다. 다음으로 군사전략의 초점은 국경 방어로부터 주변지역 방어로 전환하여 이른바 '투사전략의 확보'에 두어 특히 해·공군 중심의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 왔다.

12) 중국 국방전략의 변화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中國書籍을 참조. 楊得志 外, 「國防發展 戰略思考」, 解放軍出版社, 1987. 6.; 楊春長, 「鄧小平:新時期建軍思想研究」, 解放軍出版社, 1989. 12.

보다 더 잘 설명될 수 있다. 이 독트린은 중국의 육상과 해안지역, 특히 동중국해남중국해의 전략적 요충지를 무대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함을 그 내용으로 한다. 중국은 만약 분쟁이 동 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협한다면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군사력과의 충돌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고 이는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하는 충돌일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 2) 대만 압박과 미국 견제

중국의 해양전략은 국가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하위개념에서 추진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해양전략은 국가목표인 주권을 보호하고 통일을 달성하는 것, 안보전략 차원에서 미국의 중국압력에 대응하는 것 등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한편 중국은 안보전략상 동아시아의 지역국가들에 대한 우월적인 위상을 모색해 왔다. 중국의 해양전략은 대만,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주권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그리고 지역의 안정성과 중국의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해 왔다. 중국의 해양안보전략은 중국 주도하의 궁극적 통일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에서 대만이 영속적인 분리독립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다. 중국의 또 다른 중요한 안보전략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미사일방위체제(MD) 구상을 철저히 배제하는데 있으며 특히 전역미사일방위체제(TMD)의 대만에의 도입을 막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협력관계에 대항하는 것도 안보전략의 주된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해 놓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예민한 해양지역은 동중국해에 있는 대만해협이다. 대만의 독립정책은 중국의 국가목표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중국의 해양전략 가운데 하나는 대만의 독립정책에 대해 군사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

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사례로 중국은 1996년 양안 위기 때에 B-6 폭격기의 초계비행이 포함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2000년 4월 20일 대만의 천수이볜 총통 취임식을 앞두고 대만과 인접한 지역에서 해군력과 공군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행한바 있다. 2000년 5월 대만총통 취임식 이틀 전에도 대대적인 군사시위를 하였는데 이는 총통 취임식을 전후해 대만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었다.<sup>13)</sup>

이와 같이 중국의 지도부는 대만해협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조치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자세를 보여 왔다. 이미 중국지도부는 대만해협에 미국이 함대를 파견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같은 경고는 중국이 미국과의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갖췄음을 직접 통보하는 한편 대만문제 개입 시 미국에 대해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sup>14)</sup>

21세기 이후 미국은 중국견제를 더욱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중국견제정책은 중국으로 하여금 이에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였으며 중국의 해양전략도 미국의 해군력을 견제하는데 목표를 두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력과 미국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대응은 주로 중국의 해군력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중국의 대만에 대한

13) 당시 인민해방군은 장거리 폭격기인 B-6와 전투기, 해군함정 등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벌였다. 당시 B-6 등 중국 공군의 내륙기지를 이륙한 장거리 폭격기들이 수호이 Su-27 전투기의 호위 아래 중국 남동해안을 따라 초계비행을 하였으며 동중국해대소속 해군함정도 저장성에서 다오위다오(일본 명 센카쿠 열도) 사이 해역에서 훈련하였다(인터넷중앙일보 <http://www.joins.com>, 2000.4.25).

14) 중국의 초하오텐(遼浩田) 국방부장, 푸취안유(傅全有) 해방군 총참모장 등이 2000년 3월 중국을 방문한 데니스 블레어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에게 미군 함대의 대만해협 접근시 "국가주권 보위를 위한 과단한 행동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인터넷중앙일보, 2000.3.3).

압박정책, 미국에 대한 견제 정책에서 중국의 해양전략의 갈등적인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해양안보전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지도부는 해군의 현대화를 통한 해양력을 확장시켜 왔다. 이미 중국은 1990년대 이후 해양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거리로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는 원양해군력 구축에 주력하여 왔다. 선진 군사국가들로부터의 최신 전투기와 공중 급유기의 구입이라든가, 항공모함의 구입 또는 건조 추진 등은 모두가 중국이 원양에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국해군력의 확장은 중국의 군사적 행동반경도 확대시켜 왔다(김재철, 143-144).

## 2. 해군전략과 해군현대화

### 1) 해양력과 해군

인류 역사상 해양은 물자 수송에 효과적인 통항의 매체로서 인식되어 왔다. 막대한 부의 축적을 가능케 했던 해양통상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시도되어 왔다. 해양통상과 이를 위한 해양통항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장력으로서의 해군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마한(A. Mahan)의 해양력이론의 기반이었다(William Reitzel, 75-76). 해군력의 기본 기능은 자국의 해로(sea line of communication)를 보호하는 것, 즉 화물선과 그들이 운반하는 물건이나 사람들을 안전하게 운송하고 더 나아가 적의 해로를 봉쇄하거나 분쇄하는 것이다. 우군 화물선을 방어하고 적 화물선의 수송을 교란하는 이중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군은 일반적으로 적의 전함을 파괴함으로써 제해권(command of the sea)을 획득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다(노계룡, 53).

국제사회에서 해군력의 비약적인 발전은 해양을 단순히 수단으로 하는 통상과 통항의 목적 이외에

도 해양자원의 개발과 국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해군력의 발전을 통한 해양력의 증대는 군사적 차원을 넘어 국제정치학에서도 관심을 제고해 왔다. 해양정치학의 핵심개념인 해양력과 그 하위개념인 해군력은 강대국의 세력 확장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으며, 원거리에 있는 국가이익을 보호하는데 가장 융통성이 있는 수단이며 대안이 되고 있다.

21세기 해군전략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노계룡, 66-67). 첫째, 해군의 능력이 보다 장사정거리화(長射程距離化)되고 파괴력과 정밀도 및 지휘통제기능이 향상될 것이다. 둘째, 해상전투의 입체종합화 양상을 보일 것이다. 셋째, 해상작전 범위를 광역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해군전략이 좀 더 넓은 범위의 대양으로의 진출과 해군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 2) 중국 해양안보전략의 변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직후 중국의 지도자들은 국가목표와 국가전략상 해양진출과 해양전략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중국은 소련의 위협을 실감하면서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해군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1979년 중월전쟁 이후 캄란만과 다낭에 있는 해군과 공군시설에 대한 소련의 이용은 중국의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중국은 베트남기지의 사용권을 소련이 획득한 것은 중국 남단에서의 소련 해군력의 현시(顯示)를 용인해야 하였고 전시에 말라카해협을 포함한 남지나에서 해로를 소련이 통제하려는 것으로 인식하였다(人民日報, 1980.8.2). 당시 중국해군의 임무는 소련 전함의 말라카 해협의 통과를 거부할 수 있는 해역 통제력을 확보하거나 베트남에서 소련해군의

현시를 저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해양위협에 대한 인식만 가졌을 뿐 소련의 해양력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중국의 본격적인 해양중시정책은 1979년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의 등장과 더불어서 대두되었다. 중국의 개방정책 직후 지도자들은 중국에 대한 지상위협이 감소한 반면 해양주권과 해양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중국의 현대 해군력 건설 및 해양전략 발전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은 류화칭(劉華清)이다.<sup>15)</sup> 류화칭의 해군사령관 재임기간인 1982년에서 1987년은 중국 해군의 현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로 볼 수 있다. 동기간 중 류화칭은 해군발전과 국가전략과의 관계 및 해양권익의 중요성을 재정립하였으며 향후 중국해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류화칭은 해군력 건설에 있어서 “전자화, 자동화, 도탄화 ‘를 강조하였다(김태호, 140).

류화칭의 해군사령관 재임중 나타난 중국 해양안보전략의 변화는 과거 연안방어를 중점으로 하는 “연해방어전략” 으로부터 해안에서 보다 멀리 떨어진 수역에 대한 “근해방어전략” 으로 방어중심이 확대된 것이었다. 류화칭이 제시한 3단계 해양안보전략은 2000년까지 중국 본토에서 오키나와, 타이완,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 제도까지의 지역에서 해양통제권 확보가 가능한 강력한 해군을 확보하고, 2020년까지 보닌 제도, 마리아나 제도 그리고 팔라우 까지 포함하는 해역에서 해양통제권을 확보하며, 2050년까지 중국은 항모전투진을 완비한 전 세계적 해군력을 갖춘다는 것이다(송영산, 240).

현재 중국의 해양안보전략은 류화칭이 제시

한 “적극적 근해방어전략” 이라는 전략방침으로 대변되고 있다. 이 범위는 대륙붕이나 200마일 전관경제수역, 남사군도는 물론 팜과 마리아나열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exander Chieh-cheng Huang, 16-22). 현재 중국이 세계수준의 해군을 건설하려는 노력은 류화칭에 의해 정립된 전략적 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해양전략의 변화는 개혁개방정책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국가목표와 국가전략의 변화가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3) 현대 중국의 해군전략

중국 해군전략의 변화는 안보전략과 해양전략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 안보전략상 미국의 중국견제에 대응하고 대만에 대해 군사적 압력을 가하고, 광범위한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해군전략에서도 그 행동반경이 더욱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89년 3월 중국해군 부사령원 장쑤산(張守三)은 중국해군의 발전전략으로 ‘근해’ 방위를 전략개념으로 채택하였음을 밝혔다. 장쑤산에 의하면 “근해는 대륙붕과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중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뿐 아니라 동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및 남사군도 등이 위치한 해역에 산재해 있는 중국의 영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중국해군은 18,000km 이상의 연안을 비롯, 중국본토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300만 평방킬로미터의 법적 권리와 자원을 보호하고 통제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瞭望, 1989.3.27). 냉전종식 이후인 1996년 중국은 황색해군에서 남색해군(Blue water navy)으로 전략목표를 수정하여 작전반경을 원양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까지 함재기 40대를 갖춘 4-5만톤급 항공모함 2척을 자체 건조기로 결정하였다(조선일보, 1996.

15) 류화칭은 등소평의 신임을 받은 인물로 소련에서 해군 지휘과정을 수학한 인물이었다. 1982년에는 해군사령관, 1989년에는 당중앙군사위 부주석, 1992년에는 당정치국 상무위원에 임명되어 정치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온 인물이다.

4. 23). 중국의 지도자들은 엄청난 비용에도 불구하고 안보전략상 그 보유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항공모함의 건조를 추진해 왔다.

21세기 중국의 해군전략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첫째, 대만해협에서의 작전능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통일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둘째, 더 넓은 지역적·세계적 목표를 향한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 확보와 운송을 둘러싼 갈등 및 영토분쟁에 대한 군사적 대비라 할 것이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중요한 목표로 부상하고 있다(강량·임수환, 162).

중국해군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연안 도시, 해로 및 해양주권 보호를 그 임무로 하고 있고, 이에겐 원거리 작전 수행능력, 수송·보급능력, 대공·대함·대잠 방어능력 등이 포함된다(이홍표, 108). 특히 중국 해군의 주요 임무는 영해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도서의 방어와 대륙붕 및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보호 그리고 SLOC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의 방어임무는 때때로 200해리 이상의 원거리 출동을 요하기도 한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국은 신형 함정 및 장비의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구형의 함정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기하는 정책을 지향해 왔다.<sup>16)</sup>

중국지도부는 해군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래 중국 해군이 달성해야할 해군력 증강과정을 3단계로 제시한 바 있다. 중국 해군전략의 1단계는 유도미사일과 첨단전자장비가 장착된 대규모의 전함을 건조하여 남중국해와 북중국해까지 미칠 수 있는 비교적 큰 작전반경의 확보, 신속한 위기상황 대응능력, 독자적인 공중보호와 공격수행능력, 비교

적 효과적인 수륙양용작전 수행능력의 확보를 목표로 한다. 2020년까지 2단계 기간 중에는 경항모를 건조하고 항모를 호위하는 해군력을 건설함을 목표로 하여 수직 이착륙기와 첨단 군함을 건조하거나 구입하는 것이다. 3단계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로 이 단계가 끝날 때쯤 중국의 해군력은 구소련이나 미국의 해군력 수준에 도달하고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나 대규모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다(John Dowling, 13). 이러한 해군력 증강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해양전략이 21세기 중국의 정책적 과제로 정착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에게 위협을 주기 시작하였고 이는 '중국위협론' 등장의 배경이 되었다.

#### 4) 중국의 해군현대화

중국의 지도부는 이상과 같은 해양의 중요성과 해군력의 필요성 증대 그리고 미래 해양전략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 해군현대화를 중심으로 해양력을 꾸준히 증대해 왔다. 중국은 새로운 해군전략에 부응하는 해군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으로 1980~1993년 기간동안 약 10만의 병력을 감축하고 구형 잠수함을 대폭 퇴역시키는 등 일련의 전력정비 조치를 단행하였다(김태호, 144). 중국해군중 1990년대 이후 출현한 소수함정들은 기존함정의 세대를 뛰어넘는 군함들이다. 대부분의 장비들이 미국의 패권에 부정적인 프랑스와 러시아로부터 수입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해군은 소수의 내실 있는 기술집약형 전력 구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박주현, 96). 21세기 중국군 현대화는 육군 중심주의에서 탈피해 해군, 공군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것이다. 이는 대만해협을 중심으로 센카쿠열도 및 남사군도에서의 잠재적 분쟁에 보다 적극적인

<sup>16)</sup> 신형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미사일장비 구축함은 4,200톤급의 Luhu-052형으로서 1990년대 초반에 실전 배치되었으며 이들 신형 구축함에는 미국·프랑스 등에서 도입된 각종 첨단장비와 무기들이 장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서항, 2001).



군사대응을 염두에 두고 있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유지용. 4).

중국 해군의 전력 증강은 무엇보다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전개될 시 적군이 중국의 군사 작전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며 작전 지역에 들어온 적군의 활동능력을 방해하고 격퇴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어 왔다. 중국군은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해 해양에서의 미국의 전함을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크루즈 미사일, 중거리탄도탄, 대함탄도탄 등을 증강시켜 왔다. 중국군의 전력증강은 해양을 중심으로 공중과 우주 그리고 사이버 영역에 까지 확대되어 왔다(강량·임수환. 164). 중국의 최고지도자인 후진타오 주석은 2006년 12월 중국이 해양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한 해군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관료들에게 지시했다(이재형. 113).

중국해군은 대양해군을 목표로 특히 잠수함 전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자체 개발 생산한 잠수함 전력과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통한 무기체계 신형화를 추진해왔다(유지용. 4). 중국은 잠수함이 작전지역에 들어 온 적 해군의 활동을 방해하는 데 필수적이고 적은 수의 잠수함으로 높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해군력의 핵심으로 보고 잠수함의 신형화를 추진해 왔다(강량·임수환. 166). 중국은 그동안 러시아로부터 킬로(Kilo)급 디젤잠수함을 수입하여 10여척 이상이 취역되었다. 이밖에 자체 개발한 송(Song)급 잠수함을 비롯하여 무한조선소에서 신형잠수함을 진수시켰다(강량·임수환. 167). 중국이 자체 개발한 Type093 핵추진공격잠수함(SSN)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2004년 신형 Type094 핵잠수함을 진수했는데, 이 잠수함에는 DF-31호 미사일의 수증발사 버전인 JL-2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 것으로 보인다(강량·임수환. 166). 사정거리가 8,000km에 달하는 쥐랑(巨浪)-II형 탄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핵잠수함을 건조하였으며 2010년까지 총3척을 취역할 예정이다(2006국방백서. 24).

중국해군은 해상전함에 대공 미사일을 장착하여 영공방위능력을 강화해 왔다. 2006년에는 뤼하이(旅海)급 미사일 구축함 4척의 추가 건조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2006국방백서, 24) LUYANG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2척에 자체 개발한 HHQ-9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LUZHOU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2척에 러시아제 SA-N-20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장착하였으며, JIANGKAI II급 유도미사일 프리깃함에 개발 중인 중거리 수직발사 함대공 미사일 HHQ-16을 장착할 예정이다. 중국은 중국식 이지스함 052C형 미사일 구축함 2척을 상해에서 건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강량·임수환. 167). 한편 중국은 항공모함 건조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설계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항공모함 취항에 필요한 기술로서 수평선 넘어 있는 목표물을 겨냥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Sky Wave와 Surface Wave OTH 레이더를 개량해 왔고, 미사일의 사정거리와 정확도를 높이기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다(강량·임수환, 167).

## V. 결론

현대 중국의 해양전략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내적 요인으로는 중국의 국가전략, 경제발전전략, 대외전략, 안보전략과 같은 중국지도부의 가치관과 목표를 들 수 있다. 외적 요인으로는 새로운 해양환경의 변화로 어족자원, 해저자원 등과 같은 해양자원을 둘러

싼 국가들 간의 경쟁, 지역 국가들의 해양력 강화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내외적 요인 외에도 해양으로 부터의 침략의 역사적 경험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중국의 해양에 대한 관심과 진출은 진나라 시대 이후 시작되었다. 진나라 시대에 중국은 남중국해로 진출하였고 한나라 시대에는 인도네시아와 페르시아까지 진출하였다. 당나라 시대에는 무역부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국제무역을 전개하였고 송나라 시대에는 무역선을 보호하고 해안을 경비하기 위해 해군을 창설하기도 하였다. 명나라 영락제 시대에는 유명한 정화의 원정이 있었다. 1405년에서 1433년 까지 7차례에 걸친 정화의 원정은 동남아시아와 인도는 물론 중동지역과 아프리카 동부지역 까지 진출한 바 있다. 정화의 원정을 통해 조공관계를 형성하였고 중국의 문화가 전파되었다(이재형, 60-69).

중국의 해양진출은 명나라 시대에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졌으나 영락제 사후 해양진출정책이 중단되면서 중국의 해양진출의 막을 내리게 된다. 16세기 초 서구 세력들이 동남아시아와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중국과 서구세력들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184년 영국과 중국 간의 아편전쟁이 발발하였다. 이후 중국은 서구세력에 의해 국력이 쇠퇴해졌고 결국 청나라는 1911년 몰락하게 된다. 중국은 서구세력의 침략의 역사를 통해 해양력의 중요성을 실감하였다. 이러한 해양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역사는 현대 중국의 해양전략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볼 수 있다.

1949년 중국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직후 중국의 지도자들은 국가건설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해양진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9년 소련 해군의 베트남 해군기지 이용을 계기로 중국은 해

양으로부터의 위협을 경험하였다. 중국의 본격적인 해양정책은 1980년대 초 덩소평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등장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연해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대외무역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해양으로의 진출은 불가피하였다. 1980년대 중국의 해양정책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권확보를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갈등적인 특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권확보 정책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적·정치적 충돌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중국의 해양정책은 1990년대 초 냉전 종식 이후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책임대국론과 소강사회 건설이라는 국가전략을 표방하였고 이러한 국가전략 하에 새로운 해양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냉전 종식 이후 중국은 기존의 해양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확보를 위한 해양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중국은 국가전략으로 책임대국론을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국가전략 하에 주변국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하고 평화로운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화지향적인 해양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을 최대한 회피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변국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중국은 해양을 국가발전 목표 달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우수한 해양의 경제적 잠재력을 인식, 전체 국가차원에서 해양산업의 발전을 미래의 국가목표인 ‘소강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소강사회란 중국의 모든 국민이 어느 정도 잘사는 상태에 도달한 사회(1인당 국민총생산 약 3-4천 달러 수준)를 가리키며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있다(박광열, 2).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지도부는 해군력 강화를 중시하는 해양전략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지도부는 해군 중심의 새로운 인사를 통해 중국이 해양전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후진타오가 군권을 장악한 이래 최대 규모의 장성급 인사 조치를 통해 대만해협을 관장하는 부대의 함대사령관 출신이 육해공군을 총괄하는 총참모부 작전부를 관장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해군 함대작전의 효율을 높여 대만해협에서 군사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유지용, 4). 더불어 해군의 지위를 높여 해양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지도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21세기 중국은 점증하는 에너지 수입 및 무역을 위해 해상수송로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동남아시아 해역과 인도양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의 해상수송에 큰 손실을 가져 올 것이다. 따라서 중국 해군은 석유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이들 에너지를 운반해야 할 해상 수송로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이재형, 149).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한 중국은 앞으로의 식량자원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경제발전을 위해 해양개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 이후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해양자원 확보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해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해양력 강화를 중요한 국가목표로 선정한 이후 중국 해군은 대양해군을 지향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중국 군수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의 속도를 능가하는 속도로 군비지출을 확대하면서 군현대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중국의 해군력도 급속히 증대해 왔고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지역에서 행사해 오던 제

해권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Frank Hoffman, 9: 강량·임수환, 161)

중국의 해군력이 강화되면서 미국과 일본은 중국 군사력이 장기적으로 대외 투사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간의 군사동맹체제를 재정립하고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추구해 왔다. 21세기는 중국의 해양력 강화와 이에 대한 미일동맹의 대응태세의 변화에 따라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무역거래와 원자재 확보를 위한 활동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중국 해군의 활동 범위는 태평양을 넘어 인도양과 대서양까지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나 아직은 대양해군으로서의 요건은 미흡한 상황이다(강량·임수환, 162).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립을 지연시키고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은 해양 강국이 될 역량을 기르기 위해 당분간 시간을 버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재형, 113). 중국이 해양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시기가 도래하면 중국과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것이며 동아시아의 새로운 역학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 참고문헌

### <한서>

- [1] 강량·임수환, “중국의 해양세력화와 한국의 해양안보”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6집 3호, 2008.
- [2] 김덕기, "21세기 중국해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0.8
- [3] 김종현, 「해양과 국제정치」, 세종출판사, 1997.
- [4] 김추윤·장삼환, 「중국의 국도환경」. 대륙연구소출판부, 1995.

[5] 김재철,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동아시아 안보”. 「전략연구」, 1995.

[6] 김태호,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평가”, 국방연구원, 「국방논집」 제32호, 1995년 겨울호.

[7] 김현수 외, “21세기 해양갈등과 한국의 해양 전략”,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8] 노계룡, 차세대 해군력 전망과 한국해군의 진로,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논집」 제 29호, 1995년 봄.

[9] 박광열, “중국의 해양경제발전 기본전략”,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보고서」, 2006.7

[10] 박병석, 「중화제국의 재건과 해체」, 교문사, 1999. 12.

[11] 박주현, “다자주의와 해군력 건설 방향”, 해군대학, 「해양전략 연구논총」 제2집, 2000. 1.

[12] 송영선, 엄태암, “아시아의 해군력 변화”, 해양전략 제 96호, 해군대학, 1997.

[13] 정호섭 외, “동아시아 해로안보”,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7.

[14] 유지용, “중국특색군사변혁”과 중국인민해방군의 현대화 동향,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2005.7.

[15] 이근수, “UN해양법협약과 국제안보: 해양 Regime 개념의 적용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1999. 2.

[16] 이민호, 「해양에서의 군사활동과 국제해양법」, 연경문화사, 2007.

[17] 이정채, 「신중국의 해권과 해양영토」, 대왕사, 2005.9.

[18] 이재형, 「중국의 해양전략」, 도서출판 황금알, 2007.12.

[19] 이홍표, 「중국의 해양전략과 동아시아 안보」,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3.12.

<중서>

[1] 郭振維, “對我國未來時期區域經濟演變格局

的設想”, 郭振維 主編, 「經濟區與經濟區劃」(北京: 中國物價出版社, 1998.

[2] 張明華, “東北亞新格局與環渤海地區發展戰略”, 天津市環渤海研究會編, 「環渤海經濟研究」.

[3] 楊得志 外, 「國防發展 戰略思考」, 解放軍出版社, 1987. 6.

[4] 楊春長, 「鄧小平:新時期建軍思想研究」, 解放軍出版社, 1989. 12.

[5] 楊得志 外, 「國防發展戰略思考」, 解放軍出版社, 1987. 6.

[6] 楊春長, 「鄧小平:新時期建軍思想研究」, 解放軍出版社, 1989. 12.

<영서>

[1] Alexander Chieh-cheng Huang, "The Chinese Navy's Offshore Active defense Strategy: Conceptualization and Implications", *Naval War college Review*, No. 347, summer 1994.

[2] Donald K. Emmerson, "Indonesia, Malaysia, Singapore" in Richaed J. Ellings and Sheldon W. Simon, eds., *Southeast Asian Security in the New Millennium*, Lindon: M. E. Sharpe, 1996.

[3] Eric Grove, *The Future of Sea Power* London Roulledge, 1990.

[4] IISS, "Southeast Asia's Naval Build-up," *Strategic Comments* 3 July 1997.

[5] John M. Van Dyke, Lewis M. Alexander and Joseph R. Morgan, eds., *International Navigation: Rocks and Shoals Ahead?*, Honolulu: The Law of the Sea Institute, University of Hawaii, 1988.

[6] John Dowing, "Maritime Ambition: China's Naval Modernization", *Jane's Navy International* 103, May, 1998.

[7] Mark J. Valencia, "Asia, the Law of the Sea

-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Affairs* 73, April 1997.
- [8] Paul Beaver, "China will Delay Aircraft Carrier", *Jane's Defense Weekly*, July 3, 1998.
- [9] Sam Bateman, "Economic Growth, Marine Resources and Naval Arms in East Asia—A Deadly Triangle?" *Marine Policy* 22, No. 4-5, 1998.
- [10] Stratfor, "From Singapore to Port Said: China's Influence over the World's Waterways" *Global Intelligence Update*, 10 May 2000
- [11] William Reitzel, "Mahan on the Use of the Sea," *Naval War College Review*, May-June 1973.
- [12] Yu Xiaojie, "An Initial Probe into Deng Xiaoping's Global Strategic Thinking,"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Vol. 7 No. 4, April 1997.
- 軍報, 1988. 5. 31.
- [10] 人民日報, 1988. 8. 1.
- [11]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2.
- [12] *Pacific Review* 5 No. 3, 1992,

### <기타>

- [1] 공군사관학교, 『국방학개론』, 1996.
- [2] 육군사관학교, 『전략론: 이론과 실제』, 한원, 1994.
- [3] 국방백서2006, 대한민국 국방부
- [4] 이서항, 1999. 2, 외교안보연구원 인터넷자료실 [mofat.go.kr](http://mofat.go.kr), 2001. 1. 15 검색.
- [5] 임진수, “선박의 역사”, 해양수산부, <http://www.mofat.go.kr>: 2007. 8
- [6] 한국외통부인터넷 <http://www.mofat.go.kr> 1999년 12월 23일 검색.
- [7] 세종연구소, 『중화인민공화국 군사력에 관한 연례보고서』, 국가전략 6권 4호 2000년 겨울 (통권 제4호) <http://sejong.org> 2001.2.9 검색.
- [8] 인터넷한겨레 <http://www.hani.co.kr>, 2000. 8.
- [9] 瞭望 13호, Hong Kong, 1989. 3. 27. / 解放

## China's Maritime Strategy

Won Bong Lee

### Abstract

After Chinese reforms and market opening, China actively started working on ways to attach importance to the ocean and its maritime strategy has been developed and carried out by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We can take two things as external factors attributed to China's marine strategy. The first one is maritime environment change in the East Asian region and the second one is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aiwanese Straits and the South China Sea. And we can take about national strategy, security strategy, and change of foreign policy as internal factors. China recognizes the ocean as a major step to achieve a goal of national development.

The main goal of China's marine strategy in the 21st century is to secure marine transportation and marine resources and to make peaceful maritime environment in the ocean to keep up with their economic development by opening itself to the world. China has strengthened their defense abilities to act against threat of national security by modernizing sea forces and increased national power by building up the marine power. It is expected that China will continue to seek more aggressive maritime strategy on matters of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pour their efforts into making economic development and obtaining energy resources. This will also be one factor making new dynamics between countries in and around the East Asian region.